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테오파니스 고백자

십자가 현양 전 주일

의로우신 선조 요아킴과 안나 연관 축일

제6조, 조과복음 4

조과 :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8, B 206
- 주의 선조 찬양송 / 188, B 209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 190, 봉독서 303
- 복음경 : 요한 3,13-17 / 190, B 21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테오파니스 고백자

사람들은 자주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던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절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해 드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웃에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9월 9일 축일로 기념하는 테오파니스(760~815) 고백자 성인은 어렸을 때 같은 또래의 험뻐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아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옷에 대해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 입혀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암울한 때를 위하여



갑자기 구름이 맑은 하늘을 덮치거나,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살다 보면 때때로 구름에 햇빛이 가리듯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들께서도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순간을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린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암울한 상태가 의미 없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의혹과 유혹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통해서 값진 결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는 이런 암울한 시기를 극복한 훌륭한 표본이 되는 분입니다. 마리아 성녀는 요르단 강 건너편 사막에서 40년 동안 긴 세월을 머물면서 혼자 수도했습니다. 유혹의 물결이 그녀를 둘러싸거나, 죄에 빠져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과거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심으로 스스로 선택한 사막에서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의 강요로 시작한 것처럼 그곳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유혹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주님께 어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잔잔해질 때까지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쟁의 기간이 무려 17년간이나 계속된 후에야 비로소 고요와

평온이 찾아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암울한 때가 찾아오면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적 혹은 세속적인 유혹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평을 늘어놓으며 위안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느님, 나를 살려 주소서. 주여, 빨리 오시어 나를 살려 주소서.”(시편 70,1) 또는 “내 기도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시편 88,2)라고 외쳐야 합니다.

진실한 도움은 다른 곳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내심이나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마음과 인내심으로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다면,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련에 패배해 넘어졌다면 지체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자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이 나에게 합당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우리 안에 사시며 생명을 주시기를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질문과 대답 2

질문 : 내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게 애쓰면서 저는 때때로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대답 :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흔히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마음 속으로 실제 믿는 것보다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인간적 조건이 지닌 허약함에다가 큰 어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만 하는 지속적인 투쟁을 하나의 과제로 부여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히브리 11,1) 따라서 신앙에 대한 순전한 정의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자동적으로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순간(또는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길이 의심을 억누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의심을 극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의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의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의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신앙인은 실제로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앙과 의심이라는 두 개의 극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음에 대한 쉬운 대답은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재빠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신앙을 배우는 학교는 승리에 취해서 하는 개선 행진이 아니며, 하루하루 투쟁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나아가는 순례 여행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마태오 16,24) 성인들처럼 우리도, 마침내 바라던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전에 수풀이 우거지고 기름진 오아시스에 이르려면 먼저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만 합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9월 14일 금요일은 교회의 큰 축일인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영적 생활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일 성찬예배에 참여합시다. 이날은 성 대금요일과 같은 엄격한 금식일입니다.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별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견진을 축하합니다

지난 8월 25일 토요일에 요한 김형석 교우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정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예비 신자 교리반 2학기 개강

9월 9일(주일) 오늘부터 예비 신자 교리반 2학기가 개강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총 12주에 걸쳐 진행될 2학기 강의는 정교회의 예배와 성사 그리고 영성 생활 등 전례와 실천에 집중하여 공부합니다. 교리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 성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오찬 재개

지난 여름 동안 중단되었던 주일 성찬예배 후 사랑의 오찬이 지난 주일 9월 2일부터 성찬예배 후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성찬예배 후 식탁 교제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함께 더욱더 큰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9월 14일(금) 십자가 현양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